日 관서지역과 국제교류수업 확대

전북자치도교육청, 관서지역 한국교육원과 협약 체결
한국어 수업 위한 학습 자료 · 교구 지원 등 내용 담겨

일본을 방문중인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9~10일 관서지역(오사카·교토·나라)을 찾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10일 관서지역 한국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본 내 한국교육원은 재일한국인과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인 유학생 상담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 지역 초·중·고교와 일본 내 한국어 채택 학교 간 국제교류수업 연결, 한국교육원의 한국어강사 대상 연수 지원, 그리고 한국어 수업 및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학습 자료 및 교구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과 일본 간의 교육적 연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방문단은 9일 나라현립국제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한 학생의 K-pop을 계기로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돼 한국 대학에서 공연 연출을 공부하고 싶다는 소감을 들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열심히 공부해 양국 간 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10일 일본 관서지역 한국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서거석 교육감(가운데)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자치도교육청, 7년 만에 학교안전매뉴얼 전면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7년 만에 '학교안전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안전매뉴얼은 전북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발생 이듬해인 2015년 학생 안전교육 자료로 제작한 '학생안전길라잡이'의 바뀐 이름이다.

학생안전길라잡이는 2017년까지 3차례 부분 개정 작업을 거쳐 올해 학교안전매뉴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새로운 교육·훈련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장애학생 안전 확보 및 위험 상황 대처를 위한 특수 영역을 따로 만드는 등 장애학생 안전교육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학교안전매뉴얼 보급과 함께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학교안전교육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재난 발생 시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위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했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18일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학부모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시청각실에서 2025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5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계획과 선발 과정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지정한 영재교육기관 27곳에서 모집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소개된다.

특히 부모교육 특강으로 'AI시대, 질문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성혜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영재교육센터장이 나서 자녀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2025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전형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대상이 확대됐다.

11월 12~19일까지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영재교육기관 입학 전형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개교 77주년 과거와 현재 잇다

전북대, 내달 6일까지 대학 박물관서 기념전
1947년 개교에서 현재의 역사 · 비전 '한눈에'

전북대학교 역사관(관장 엄혁용)은 개교 77주년을 기념해 10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박물관 1층 중앙홀에서 '全大, 걸어온 77년 나아갈 100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지난 77년 동안 수집된 150여 점의 학교사 자료를 공개한다. 이 자료들은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민이 함께 모은 것으로, 전북대학교의 발전과 변화를 담고 있는 사진, 문서, 박물류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특히 초창기 대학 자료에서부터 교수의 연구 활동 및 교육 관련 자료, 학생운동 및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됐다.

전시는 총 3개의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파트Ⅰ '全大 77년! 그 눈부신 역사'는 1947년 개교부터 2024년 현재까지의 전북대의 발전 과정을 연표와 자료로 소개한다.

이어 파트Ⅱ '全大 77년의 기억'에서는 대학 발전의 원동력인 교수, 직원, 학생 관련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며, 보이는 역사관 자료실을 통해 수집된 유물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파트 Ⅲ '全大 100년의 가능성'은 글로컬 대학 선정, 지역 인재 양성,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대학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엄혁용 역사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북대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 시절의 감동과 영감을 얻길 희망한다"며 "희수(喜壽)를 맞은 전북대를 축하하는 자리에 많은 구성원과 지역민들이 함께 해 지역의 자랑인 전북대의 역사와 가치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완주 수소 특화 산단 내 계약학과 개설 논의 본격

전북대, 내년 수소에너지고 전환 하이텍고와 협의 착수
졸업생 배출 2028년 개설 목표… 인재 조기 확보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 수소 특화 국가산업 단지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북대학교 계약학과 개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전북대 JBNU 지역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전북하이텍고와 연계해 이 고교를 졸업자가 배출되는 2028년도에 맞춰 수소 분야 계약학과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마이스터급 고졸 인재부터 대졸급 이상의 석·박사 R&D 인재까지 학생의 희망 커리어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게 해 다양한 수준의 수소 전문가를 육성하는 지역 정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하이텍고 송현진 교장은 "전국 최초 수소에너지고 개교에 맞춰 수소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개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고졸급 영마이스터 수준부터 석·박사 R&D 수준까지 지역정주형 수소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JBNU 지역발전연구원장(공대 교수)은 "완주에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면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를 육성하는 지역 안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계약학과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방향도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수소에너지고로 전환되는 전북하이텍고는 LS엠트론(주), ㈜한솔케미칼, 미원상사(주),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등 관내 5개 대기업과 ㈜비나텍, ㈜정석케미칼 등 중견기업 등 81개 업체 191명의 취업처를 확보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학생들, NASA 글로벌 캠프서 우주탐사 꿈 키운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중1 학생 20명 대상 18~26일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26일 7박9일 일정으로 '2024년 NASA 글로벌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팀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게 목적이다.

캠프는 18~19일 워싱턴 D.C.에서 대학 탐방과 과학 탐구활동으로 시작된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NASA HQ(본부)와 NASA Goddard Space Center를 방문해 우주 탐사와 관련된 최신 기술을 배운다.

이어 조지워싱턴 대학교와 NASA Goddard Space Center 특강을 들으면서 이공계 진로선택 및 설계 기회를 갖는다.

특히 세계 최대 우주 탐사 박물관인 스미소니언 국립 항공우주박물관도 방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일부터는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에 있는 우주로켓센터에서 NASA Space Camp에 참여한다.

이 캠프에서는 △로켓 추진력의 원리 △우주비행사 시뮬레이션 △우주복 체험 △우주선 발사 준비 단계의 이해 △무중력 체험 △미션 트레이닝 및 팀 미션 체험 △로켓 모형 만들기 등 미래 우주탐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세계화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우리은행과 협약 체결 | 인 · 물적 자원 교류 등 적극 협력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0일 본관에서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진배 총장, 권수태 교육부총장, 윤찬영 대외부총장을 비롯해 우리은행 김범석 국내영업부문장, 박수영 NPS 전북영업본부장, 김유연 전주중앙금융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전주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증 발급 △외국인 학생 대상 금융서비스 지원 △양 기관 보유 인적 및 물적 자원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범석 국내영업부문장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대학교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학의 국제교류 강화에 발맞춰 금융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며 "아울러, 주거래은행으로서 전주대학교 재학생과 임직원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는 지난 10일 본관에서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이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전주대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300여 개 대학과 자매대학 협정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부안남초, 새만금환경생태단지 걷기 행사 프로그램 진행

부안남초등학교(교장 정한상)는 매 학기마다 전교생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마을길을 걸으며 마을의 전통문화와 마을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을길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해 6번째로 부안군 하서면에 소재한 새만금환경생태단지(이하 생태단지)내 걷기 행사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의 내용으로 전개됐다.

특히, 환경보전의 공감대 형성과 동참하고 있는 작은 모임 출발로 지역 내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는 초석을 이루었으며 우리 지역의 삶터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해 나가기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는 것.

정한상 교장은 "아름다운 자연과 살기 좋은 환경이 여러분 손끝에서 만들어진다는 자부심으로 계속해서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비전대학교가 지난 11일 SDG그룹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비전대 - SDG그룹, 산학협력 협약

전주비전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지난 11일 SDG그룹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병훈 총장을 비롯해 SDG그룹 성대근 회장, 박준성 부회장, 한가영 수석 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국비(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 사업 승인(선정) 및 운영 관련 제반사항 △NCS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 사업 관련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인프라 형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성대근 회장은 "전주비전대학교와 협력을 맺어 기쁘다"며 "지금까지 SDG그룹에서 쌓아온 많은 노하우와 기술 등을 전주비전대학교의 색깔에 맞게 잘 녹여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병훈 총장은 "SDG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국비 지원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전국 장애학생 예능제 '콩나물 콘서트' 개최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는 지난 11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전국 장애학생 예능제인 '제15회 콩나물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특수교육과가 주최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급) 장애학생과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학생들은 악기 연주와 노래, 연극 등 그동안 갈고닦은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맘껏 펼쳐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와 함께 페이스 페인팅과 나만의 키링 만들기, 포토존 사진 촬영, 상자 속 물건 맞추기, 마술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이날 수상자로는 익산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시헌 외 8명과 김미경 혜화학교 교사가 총장상을, 혜화학교 정지영 외 5명이 교육감상을, 전주은화학교 김건무 외 6명이 사범대 학장상을, 대전맹학교 신지후 학생이 특수교육과 학과장상을 각각 받았다.

백종남 학과장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개성을 드러내는 일은 나이와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예술적인 분야에 자신감을 얻어 다양한 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